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자료

기출문제, 출제의도 및 해설

2014. 11. 23(일) 오전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일 오전)

논 술 고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In Seligman and Maier's experiment, two groups of dogs were placed in harnesses. Each dog in Group 1 was intentionally subjected to pain by being given electric shocks, which the dog could end by pressing a lever. Each dog in Group 2 received electric shocks of identical intensity and duration, but pressing a lever did not stop the shocks. For the dogs in Group 2, the shock was apparently inescapable. While the dogs in Group 1 quickly recovered from the experience, the dogs in Group 2 learned to be helpless and exhibited symptoms similar to chronic clinical depression.

The cause of learned helplessness*, according to Seligman, is the repeated exposure to an uncontrollable event. After many repeated and failed attempts to accomplish something while being in an uncontrollable event, your brain learns that success is beyond your control and that you cannot affect the outcome. Once conditioned to this belief, you give up hope and effort, even when later exposed to a similar event where control is possible. In effect, you've learned to become helpless.

*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

Education Portal 외

<자료 2>

1963년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동물 대상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로젠탈은 실험심리학 전공 학생들에게 “미로 바보”라 이름 붙인 쥐들과 “미로 수재”라 이름 붙인 쥐들을 제공한 뒤, “미로 바보” 쥐들은 학습 효과가 없는 쥐들이지만, “미로 수재” 쥐들은 처음에 보통 쥐와 비슷한 것 같아도 금방 학습 효과를 보이는 똑똑한 쥐들이라고 얘기해 줬다. 사실, 두 종류의 쥐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쥐들이었다. 5일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미로 수재” 쥐들이 실제로 미로 통과 과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학습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로젠탈은 “미로 수재” 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미로 수재” 쥐들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다루었는지가 결과의 결정요인임을 발견했다.

이어지는 연구에서 로젠탈은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어 제이콥슨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퍼센트 정도의 학생을 뽑았다.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믿게 하였다.

8개월 후 이전과 동일한 지능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Robert Tauber, *Self-Fulfilling Prophecy*;
OO출판사,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1>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료 2>에 제시된 효과의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뒷면에 계속 >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3>

문학작품이나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아무리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론에 ‘오염’되지 않은 채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해석은 이미 그 자체로 이론적인 여러 가정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이 이론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내면화하여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특정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란 없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가정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가정들은 분명 존재한다. 문학작품에 행해지는 해석이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해석은 결단코 문학, 교육, 언어 및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곧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스며든 나머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확신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울러 명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일단 비평이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된다는 점이다. 훈련을 통해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은 인간의 경험과 온갖 사상 세계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며, 그렇게 되면 문학작품에 담긴 강렬한 밀도와 다채로운 짜임새, 의미의 미묘한 차이들을 한층 더 음미할 수 있다. 이론을 통해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되는 것이다.

Lois Tyson, *Critical Theory Today*

<자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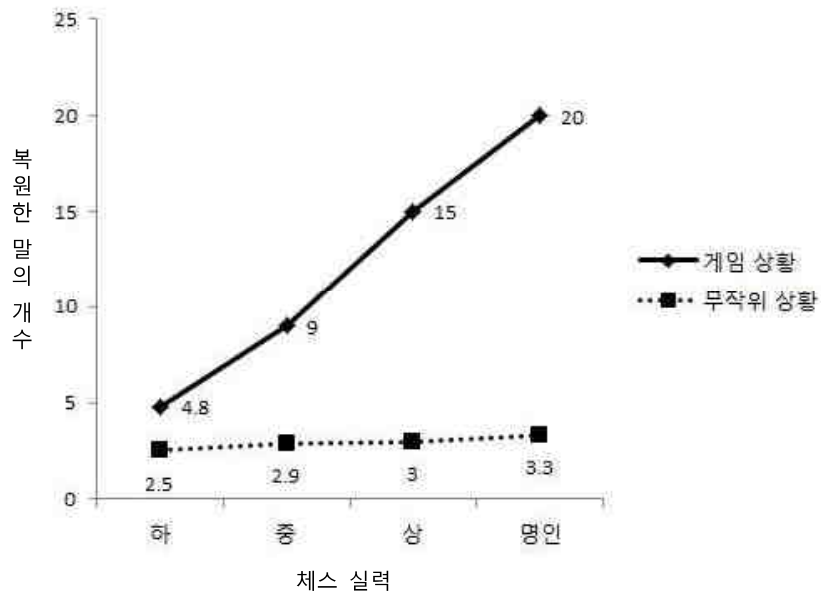
프레임은 인간의 실재를 이해하도록 해주며 때로는 우리가 실재라고 여기는 것을 창조하도록 해주는 심적 구조이다. 즉, 프레임은 우리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구조화하고, 사유방식을 형성하며, 심지어 지각 방식과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문법 연구에서도 프레임 없이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은 기존 연구 프레임에 기대는 대신에 언어 자체의 표현 방식에 집중하여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연구 대상 언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피해야 할 편견임을 유념해야 한다. 문법 프레임은 언어 현상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수 있고, 어떠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일단 이런 편견이 만들어지면 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언어 자료와 합리적 사유에만 의거해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한계가 있더라도 기존 프레임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프레임 없는 문법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려 한다.

George Lakoff, *Thinking Points*;

B. Heine & H. Narrog (ed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자료 5>

체스 명인은 체스판 위의 말들을 5초 정도만 봐도 말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낸다. 그루트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우수한 체스 명인의 단기기억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체이스와 사이먼은 이 능력이 탁월한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체스판 위의 말들을 무작위로 배열할 경우에는, 체스 명인 또한 보통 사람처럼 말의 위치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체스 명인이 말의 위치를 기억해 복원해내는 능력은 게임 중 말들이 체스판 위에서 그룹을 지으며 만들어가는 구조를 인지하는 능력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 그래프는 체스 실력에 따라 체스판 위의 말의 위치를 평균 몇 개나 기억해 내는지를 보여준다. 체스판 위의 말의 위치는 게임 상황일 때와 무작위 상황일 때로 나누어지며, 체스 실력은 “하-중-상-명인”으로 구분된다.



W. Chase & H. Simon, "Perception in Chess";
 B. Baars & N. Gage,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프레임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3>을 활용하여 <자료 5>에 제시된 체이스와 사이먼의 주장을 그래프의 수치를 근거로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